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Musical Annie



뮤지컬 애니

Book by **Thomas Meehan** Music by **Charles Strouse** Lyrics by **Martin Charnin**

Original Broadway Production Directed by
Martin Charnin

Presented on Broadway by
Mike Nichols

Produced by
Irwin Meyer Stephen R. Friedman Lewis Allen

예술총감독 김효경 | 원작 Thomas Meehan | 작곡 Charles Strouse | 연출 김덕남 | 번역 성수정 | 각색 전수향 | 음악감독 엄기영
안무 서병구 | 무대디자인 장성주 | 의상디자인 이윤선 | 조명디자인 이종우 | 음향디자인 조영진 | 분장디자인 김종한 | 소품디자인 조윤형

2011.12.15 목 ~ 29 목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7시30분 / 주말 3시, 7시 / 26일 (월) 공연 없음

Alvin Nederlander Associates Inc. |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Icarus Productions
Based on "Little Orphan Annie" By Permission of The Tribune Media Services, Inc | Originally produced by The Goodspeed Opera House Michael P. Price, Executive Director

주최 | 세종문화회관 **YTN** | 티켓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입장권 | VIP석 7만원 / VIP석 5만원 / R석 4만원 / S석 3만원
할인혜택 | 창립50주년기념 개막할인(15일) 50% / 세종문화회관 유료회원 30% / 단체 20인 이상 20% / 장애인(국가유공자) 50% / 세종벨트쿠폰할인 20% / 가족할인(3인, 4인) 15%

※ 세종문화회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YTN

2011년 11월 <제 95 호>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매체영향력

Big 4

목차

02 커버스토리 _ 매체영향력 'Big 4'

- ① YTN과 스마트 저널리즘 _ 홍문기
- ② 뉴욕에서도 뉴스는 YTN _ 김창중
- ③ 미리 만나는 YTN 웨더 어플리케이션 _ 윤미영
- ④ 왜 영화사들이 YTN을 찾는가? _ 김다혜

12 핫이슈

- ① 개국 16년 만에 처음 선보인 <YTN 전용서체> _ 오재영
- ② 제 8회 해외리porter 교육 _ 이희경

16 현장취재기

- ① 10.26 재보궐 선거 개표방송 _ 최영주
- ②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고발 _ 김대근
- ③ 중학 야구 승부조작 논란 보도 _ 황혜경
- ④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제주바다 추락 보도 _ 고재형

23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YTN 경력사원 입사

24 ZOOM IN

세계학생영어토론대회 참관기 _ 김동현

26 콘텐츠확대

- ① DMB는 최고의 수익을 제공하는 존재 _ 기정훈
- ②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는 천문학 <별별 이야기> _ 차순길
- ③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힘, 과학 리더를 만나다! <리더스 카페> _ 지정운

32 부서탐방

YTN라디오 <뉴스제작팀>을 소개합니다 _ 안지영

34 동호회활동_스킨스쿠버

예마(예비 마스터다이버)를 꿈꾸며... _ 이승주

35 포토뉴스/게시판

커버 매체영향력 'Big 4' ... 스마트 YTN
스토리

지상파를 앞서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YTN

매체영향력 Big 4 에 오르다!

1주일간 이용한

● 국내외 언론사 앱 방송사 중 1위

언론사 최초 백 만건 다운로드 이어 ~
(조선▶중앙▶YTN▶동아)

뉴스를 보기 위해

●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 4위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상승 ~
(KBS▶MBC▶네이버▶YTN▶SBS)

● 가장 좋아하는 TV채널 4위

지상파이어 케이블 1위 ~
(KBS▶MBC▶SBS▶YTN▶SBS-ESPN)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된 모든 매체에 대한 '2011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대한민국 뉴스채널 YTN의 높은 시청률과 신뢰성이 다시한번 확인됐습니다.
* 2011년 9월, 전국 10,000명 대상 1:1 면접조사
(신뢰도 95%, 표본오차 ±0.98%, 한국광고주협회)



<표지사진>
매체영향력 'Big 4'



‘YTN과 스마트 저널리즘’

트위터를 통한 맥락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시민 단체 출신의 시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고, 하루나 이틀 동안만 파격적으로 할 인되는 상품은 스마트 폰을 통해 전달되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이나 세계의 물가지수를 파악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현명한 주식 투자를 보장해 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저널리즘 가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과거 신문이 방송 보도의 연성화를 지적하면서 부각시켰던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뉴스/정보 전달의 증가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한 조사 결과는 방송의 미디어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의 미디어 영향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광고주협회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일(추석연휴 및 연휴 후 1주일 조사 중지)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제주도 및 읍면지역 포함)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표본오차 ±0.98%P/95% 신뢰수준)한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방송의 영향력은 작년(84%)에 비해 6% 감소한 반면 인터넷은 작년(11%)보다 3% 증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기사·뉴스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사)로는 KBS(36.6%), MBC(24.4%) 등에 이어 NHN 네이버(10.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YTN은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상승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KBS는 작년(53.9%)보다 약 8%가 떨어져 영향력이 급감한 반면, NHN 네이버는 작년 8.8%에서 약 2% 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10~20대는 NHN 네이버, 30대는 MBC, 40대 이후로는 KBS를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스스로 언론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네이버가 언론기관임을 자임하는 신문사보다 더 많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국 사회의 저널리즘 환경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널리즘 가치 구현과 관련해 미디어 영향력 못지않게 중시돼야 하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이다. NHN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이용자 수의 증가와 비례해 그 영향력은 높아졌지만 최근 불거진 파워 블로거들의 뇌물수수 사태와 뉴스 영

향력이 높지만 스스로 미디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의 무책임한 모습 등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증시되고 이는 곧 미디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결국 미디어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저널리즘 가치 구현 과정을 온라인 미디어들도 겪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절대적인 미디어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문사들의 공정성에 이의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이번 광고주협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2%가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스마트 미디어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작년(6.1%)에 비해 거의 5배(34%)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로 뉴스를 보는 사람은 35%였고 방송사의 보도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 YTN의 이용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인터넷과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저널리즘 가치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수용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닐까? YTN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에서 모든 방송과 신문을 통틀어 매체 이용률 1위를 차지해 미디어 영향력을 인정받았고, 작년까지 연속 4년 동안 한국언론학회가 심사하는 '가장 공정한 언론사로 선정돼 미디어 신뢰도를 입증했다. 이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이 되기 위한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 TV채널 YTN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송의 미디어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믿을 수 없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관심 사항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미디어 환경에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YTN은 올바른 저널리즘 가치를 지향하는 미디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수준의 뉴스/콘텐츠를 취재하고 편집해 보도하는 스마트한 저널리즘이 YTN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홍문기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왼쪽에 홍문기 교수, 2008년 샌디에고 (San Diego)에서 열린 전미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참가자와 함께... 이 학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회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학회다.

Smart Journalism.

뉴욕에서도 뉴스는 YTN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와 함께

한 번은 YTN 개국 15주년 축하메시지 촬영을 하기 위해 뉴욕 플러싱에 있는 한인 식당을 찾은 일이 있었다. 뉴욕에 산 지 10년이 넘어서 웬만한 식당은 한 번쯤은 가봤는데 이왕이면 인터뷰를 잘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 잘 아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됐다.

우선 먼 발치에서 식당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YTN인 것을 확인한 후 아주 자신 있게 들어갔다. 식당 주인도 아는 얼굴이라 반갑게 맞아주면서도 카메라를 보더니 무슨 일이며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였다. 요즘 뉴욕에는 식품위생 등급제가 생겨서 식당 주인마다 위생검열관이 나올까 봐 항상 노심초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 놓아도 위생검열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테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검열에 대한 불안감에 카메라만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YTN 축하메시지를 담기 위해 왔다고 하니까 그제야 안심하고 아주 환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 것이었다.

“왜 식당에 YTN을 틀어놓느냐?”고 물어보니 “손님들이 원하다.”고 대답하셨다. KBS나 MBC, SBS 등은 대부분 드라마가



골프선수 김미현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많이 나오는데 대개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고, 잠깐 식사하면서 보기에는 뉴스가 최고라는 것이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뉴스가 방영되니 한국 소식을 곧바로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다. 식당 주인의 인터뷰를 마치고 손님 한 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집에 가면 YTN만 본다.”는 대답이었다. 보통 한국 TV는 잘 안 보는데 뉴스만은 꼭 보다는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볼 시간은 없지만, 뉴스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뉴스 하면 YTN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원하는 답을 이렇게 쉽게 얻게 돼 참 뿌듯했다.

이 한식당을 뒤로 하고 2블록 떨어져 있는 다른 한식당에도 들렀다. 이 식당 주인 역시 안면이 있었다. 이 분은 특히 뉴욕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이셨다. 가끔 내가 보도하는 뉴스를 보신다고 하시며 매우 반갑게 맞아 주셨다. 무엇보다 YTN이 한식 세계화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셨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식당에 항상 YTN만 틀어놓는다고 밝히셨다. 언젠가부터 스포츠 중계 빼고는 YTN을 틀어 놓는데, 왜 자주 취재를 안 하느냐며 내게 오히려 편

잔을 주셨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뉴욕 지역의 뉴스나 한식 세계화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매우 반갑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 국내 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한국에 재외동포의 이야기나 소식이 더 많이 소개됐으면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덧붙여 뉴욕 동포에 대한 뉴스가 YTN을 통해 방송돼 좋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언젠가부터 뉴욕에서 ‘뉴스’하면 YTN으로 통한다. 뉴스는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이 이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 TV의 역할이 확실히 축소된 것 같지만, 이곳 동포사회에서는 아직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에서만 위성방송 외에도 두 개의 현지 케이블 채널을 통해 YTN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그만큼 여기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뉴욕 지역의 뉴스를 취재하는 해외리포터로서 동포의 목소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퍼진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다. 나는 YTN에서 뉴욕을 대표해 일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김창중 YTN월드 뉴욕리포터



New York loves YTN

스마트시대의 필수품 내 손안의 YTN 앱 트리오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움직이는 휴대 전화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니 개인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보기가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방송사 앱으로는 YTN이 1위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YTN은 개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YTN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국내 방송사에서는 최초로 뉴스 전문채널 YTN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과학 전문채널 YTN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날씨 전문채널 YTN웨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YTN에서 전달하는 실시간 뉴스를 보고, 읽고, 듣고, 과학을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퀴즈를 풀고, SNS로 소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YTN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까지 스마트폰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011년 7월 YTN웨더의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YTN에서는 YTN웨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시작했다. 수많은 국내의 날씨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벤치마킹 분석하였고, 웨더본부 기상팀원들과 디지털YTN 모바일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국내 유일의 날씨 전문 채널답게 기존 어플리케이션과는 차별화되는 서비스 전략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YTN의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중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YTN웨더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서비스 중인 다른 날씨 어플리케이션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YTN웨더 어플리케이션의 특화된 서비스 몇 가지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자.

첫째,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YTN웨더

YTN웨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차별화된 모바일 콘텐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HD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TV에서 보던 YTN웨더가 통째로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별 VOD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이는 YTN이라는 방송사에서 YTN웨더를 개국했기에 가능한 서비스이며, 경쟁 관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YTN웨더만의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능형 날씨 예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적극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인텔리전스하고, 인터랙티브한 날씨 예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맞춤형 날씨 예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테마별 날씨와 생활 밀착형 날씨 정보를 제공하며, 테마별로는 취미와 계절, 야외 활동에 따라 총 15개의 소 주제로 분류되는데, My 테마 메뉴를 지원하여 개인 맞춤형 날씨 예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YTN웨더 어플리케이션은 계절감을 반영하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UI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린 UX로 TV 시청과 날씨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 매우 매력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YTN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YTN 뉴스, YTN사이언스, YTN웨더 이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은 YTN을 대표하는 어플리케이션 트리오라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YTN 뿐만 아니라, 각각 뉴스, 과학, 날씨 분야를 대표하는 어플리케이션 트리오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미영
디지털YTN 전략기획팀장



커버 스토리

매체영향력 'Big 4' ... 스마트 YTN _ 왜 영화사들이 YTN을 찾는가?

영화의 현실감을 높여주는 YTN “뉴스는 YTN이죠”

매체영향력 'Big 4'을 달성한 YTN에 국내 우수 영화사들의 PPL(Product Placement : 간접광고)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광고주협회에서 실시한 방송신뢰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즐겨 찾는 방송매체 <Big 4>'의 위상을 영화사들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뉴스채널 YTN에 PPL을 요청한 영화사가 올해에만 40개 사를 넘고 있다.

YTN은 지난 1월부터 '도가니' 등 19개 영화에 대해 PPL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내 아내의 모든 것' 등 다수 작품에 대해 앵커의 뉴스 진행 장면과 스튜디오 촬영, YTN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니'는 개봉 첫 주부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의뢰인'은 개봉 후 전국 흥행 1, 2위를 다했다. 지금까지도 '도가니'와 '의뢰인'은 국내 박스오피스 랭킹 10위 안에 머물고 있어 영화 PPL을 통한 한국의 뉴스채널 YTN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화 PPL의 위력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영화가 바로 '세상을 바꾼 영화' '도가니'이다. 'YTN 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행해졌던 더러운 성폭력과 학대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영화 전체 분량으로 보면 짧지만, 영화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YTN을 통해 자칫 묻혀버릴 뻔 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됐고, 영화의 실질적인 전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전 세계에서 동시개봉해 화제를

모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월드 인베이전'에서도 YTN은 외계인의 지구침공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방송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YTN에 국내의 영화사들의 PPL요청이 늘고 있는 것은 영화의 시나리오 전개상 꼭 필요한 뉴스매체로 YTN이 가장 적합하다는 제작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영화사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화사와 미팅을 할 때면 꼭 "뉴스는 YTN이죠"라고 말하며 대화가 시작된다. 홍보팀은 영화사로부터 PPL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 YTN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고,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송현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YTN은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YTN은 물론, YTN DMB, YTN 라디오(94.5 MHz) 등을 통한 영화PPL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얼마 전 YTN에서 장시간의 촬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특수본'과 '비상', '화차' 등의 대박 흥행을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김다혜 홍보팀



잠깐인터뷰 영화 '의뢰인' 출연한 김현아 기자

어떤 계기로 영화에 출연 하게 됐는지, 또 출연하기로 한 이유는?

영화 출연 요청이 들어온 건 1월입니다. 그날 아침은 웬지 가슴이 두근 두근하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로 출지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신맛하게 맴돌... 았던 것 아니군요 ^^; 홍보팀을 통해 촬영요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기자가 출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동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엔 영화 촬영팀에서 "검찰 출입 기자"라는 조건을 달았답니다. 당시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는 저뿐이라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영화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촬영인데도, 생각보다 촬영에 동원되는 인력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작 한 마디 하는데 그 추운 날, 20~30명이 저를 둘러싸고 지켜보면서 일을 하는거예요. 감독과 촬영팀은 물론이고 코디나 메이크업 해주는 분, 의상, 섭외 등등... 전 팀이 다 나와서 쳐다보니까 늘 하던 스탠드업도 점점 부담이 커지더군요. 절대로 NG가 많이 나서 변명하는게 아닙니다...

영화 '의뢰인' 개봉 했는데 보셨나?

보고 난 뒤 소감은?

또 YTN기자로 영화에 출연 한 소감은?

시사회표가 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하정우를 봤습니다! 하정우를 봤습니다!하정우!! 영화에 제 얼굴이 생각보다 매우 크게 나왔고, 제가 읽은 멘트가 전부 다 나왔고 (배우 소질이 있나?) 하정우가 생각보다 골격도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영화는 재미있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꼭 뉴스를 하기 위한 것들 외에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도 재미있는 경험을 해 볼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화 출연 후 주위의 반응은?

실물이 더 예쁘답니다. 진담입니다.

또 영화 섭외가 들어오면 해 보실 생각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천만배우 등극의 꿈'을 꾸게 해드리고 싶네요. ;)

여담으로 여자 박대기 기자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어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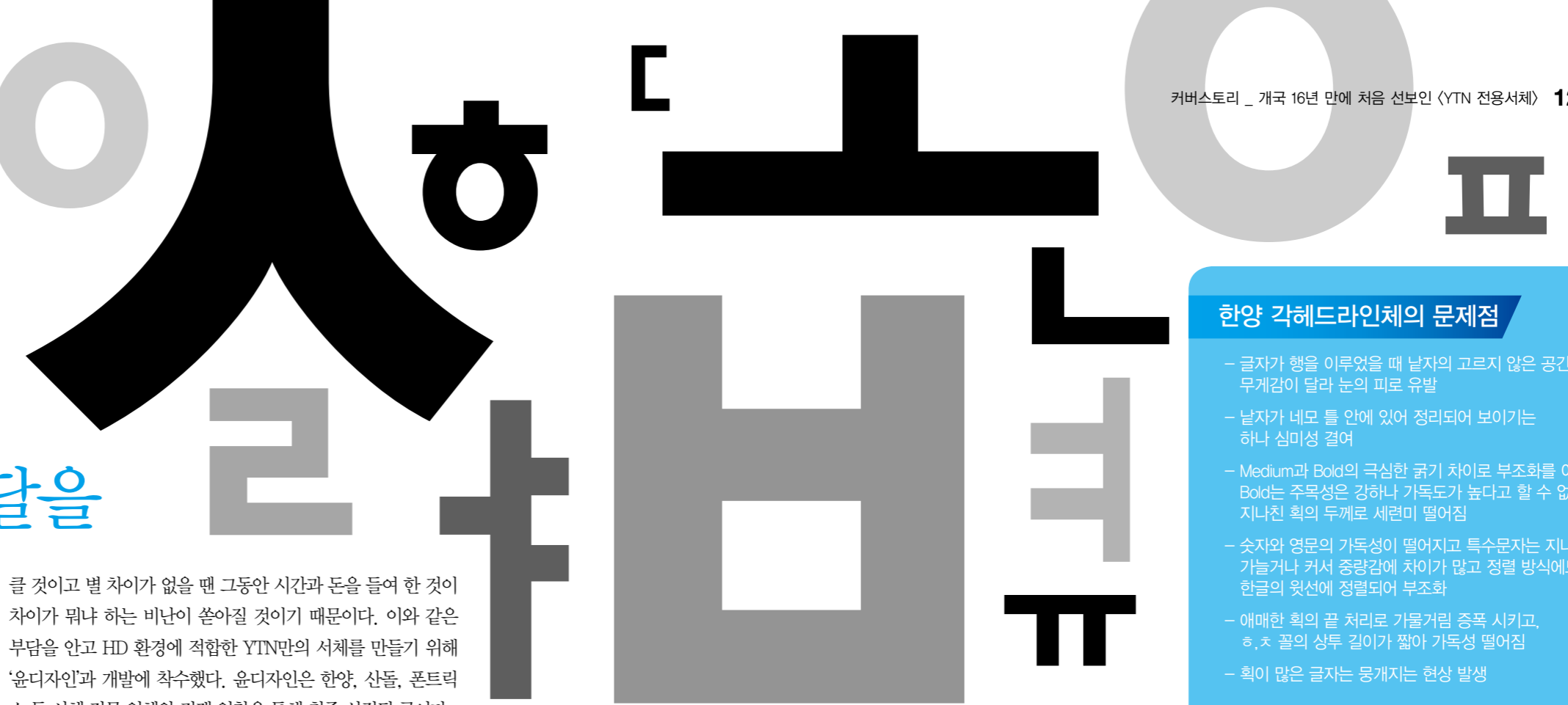
'유명한 일화'에 대한 민망한 소감대신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1. 박대기는 저보다 후배입니다.
2. 명함에 캐리커처 그릴 예정이 없습니다.
3.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 여러분 사랑합니다.

YTN 서체로 다양한 화면과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개국 이후 처음 제작하는 YTN 전용서체

뉴스 채널에서 서체는 기능적인 것으로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주목성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서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가독성에서 최상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표출되었을 때 차별화된 채널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TV를 통해서 보이는 서체는 자체의 디자인이 뛰어나도 반드시 가독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서체의 형태와 문자 구조 등이 채널의 성격에 맞아야 하며 번짐, 잔상 등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YTN의 용도와 채널의 성격에 맞는 전용 서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국 후 16년 만에 제작하게 됐다.

늦었지만 전용서체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원이 많았지만, 담당 부서로서는 부담 또한 상당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한양 각헤드라인체'에 모두 익숙해 있어서 각헤드라인체와 너무 다르게 디자인됐을 때는 낯설어서 반감이



클 것이고 별 차이가 없을 땐 그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한 것이 차이가 뭐냐 하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담을 안고 HD 환경에 적합한 YTN만의 서체를 만들기 위해 '윤디자인'과 개발에 착수했다. 윤디자인은 한양, 산돌, 폰트릭스 등 서체 전문 업체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곳이다.

올해 2월에 시작해 8월 말 완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사용한 '한양 각헤드라인체'는 출판용 서체로 보완 없이 사용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방송 환경에 적합한 우리만의 서체를 만들기 위해 윤디자인과 작업에 들어갔다.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가독도와 심미성에 중점을 두었다.

YTN의 전반적인 방송 환경과 서체의 제작 방향을 제시하고 분석 작업 후 첫 시안을 받아 봤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그래픽팀에서도 과연 모두에게 충족시키는 서체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다른 직종에 비해 다양한 서체를 접하고 사용하는 그래픽팀에서도 오랫동안 각헤드라인체에 익숙해서 낯설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정을 위해 자주 보고 사용해보니 더 세련되고 좋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3월 초에 첫 시안이 나온 후 윤디자인의 디자인, 기술 파트와 많은 미팅과 이메일을 교환하며 보완하고 다듬어 나갔다. 초기에는 각각의 날자 위주로 수정하고 날자가 어느 정도 다듬어진 후에는 문장과 행을 이루었을 때 전반적인 조형성과

가독성 등 세부적으로 수정했다.

서체가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여러 번 있었고 인쇄물과 모니터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르고 각각의 모니터에서도 달라 당황스러울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하단 포맷에 대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간, 어간과 영문 특문 숫자와의 조화 등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문자장비와의 호환성 문제까지 확인 후 지금 방송을 통하여 보고 있는 서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현재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며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반응을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보완 작업 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체디자인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작업을 통하여 새삼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고딕체 하나만 만들었지만 명조체나 필요에 의한 다른 분위기의 서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다양한 화면 구성과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만들어진 YTN의 전용서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으나 규정에 맞게 통일성을 갖고 사용되어 시청자에게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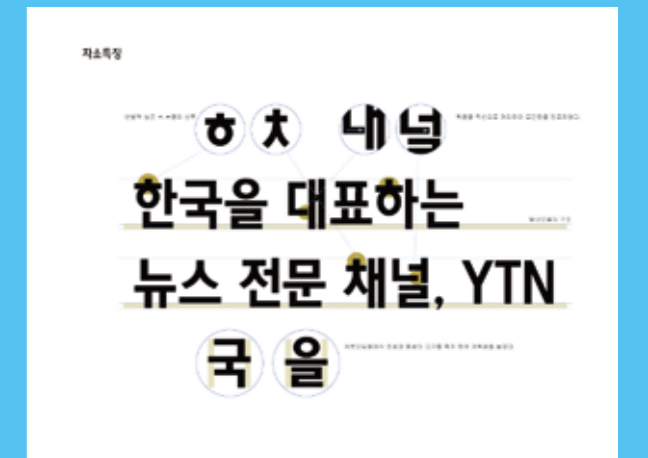
오재영 차장 그래픽팀

한양 각헤드라인체의 문제점

- 글자가 행을 이루었을 때 날자의 고르지 않은 공간 분배로 무게감이 달라 눈의 피로 유발
- 날자가 네모 틀 안에 있어 정렬되어 보이기 하나 심미성 결여
- Medium과 Bold의 극심한 굵기 차이로 부조화를 이루며 Bold는 주목성은 강하나 가독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지나친 획의 두께로 세련미 떨어짐
- 숫자와 영문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특수문자는 지나치게 가늘거나 커서 중량감에 차이가 많고 정렬 방식에도 한글의 윗선에 정렬되어 부조화
- 애매한 획의 끝 처리로 가물거림 증폭 시키고, ㅎ, ㅈ 끝의 상투 길이가 짧아 가독성 떨어짐
- 획이 많은 글자는 뭉개지는 현상 발생

YTN체의 컨셉과 자형의 특징

- 디자인 컨셉 도출하는데 키워드
- 정보, 도약하는, 참신한, 디지털, 젊은, 신뢰, 도전
- HD 모니터 환경에 적합한 자막용 서체
- 한글 2,350자(+추가자 139) 숫자, 영문, 특수문자 영역 개발
- 섬세한 가변 글자 폭 조절(5단계), 변별력 높은 자소의 형태를 취하여 가독성 높임
- 탈 네모 구조로 기존 서체보다 세련되고 획의 끝을 직선으로 처리하고 원은 정원에 가깝게 하여 모던함을 강조
- 인위적인 장설정은 폰트 고유의 조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width(글자 폭)가 가변이고 기존 서체보다 15% 정도 가로 폭이 좁은 세로 장체로 제작
- 서체의 기본적인 정렬 방식 무시하고 숫자와 영문, 특문이 최대한 한글의 중앙에 위치하고 크기를 키워 시각적인 한글과 중량감 비슷하게 제작



“이렇게만 ‘안’ 하면 나도 프로!”



교육중인 YTN월드 리porter들이 '글로벌 코리아' 제작 현장을 방문했다. 출연을 마친 이은결 마술사와 함께

“네.. 아마추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실수죠!”
 “여기 looking room 부분에 공간이 없죠.. 이러면 답답해 보이죠.”
 “인터뷰이에게 마이크를 건네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이 그림은 주제가 안 보이네요.”
 어찌 보면 내가 찍은 리포트 촬영분은 ‘텍스트’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초보들이 보이는 실수의 전형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책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렇게만 ‘안’ 하면 나도 프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카메라와 친하지 않고 전형적인 기계치인 내가 덜컥 해외리porter에 합격했을 때, 환호도 잠시, 아이템을 선정하고 촬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 카메라에 대해 잘 모르고 긴장된 상태에서 찍는 바람에 벌어진 연이은 실수들은 간혹 수습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는데, 무섭도록 조용한 화면 속에서 인터뷰이의 입만 빙긋거리고 있을 때!

리포트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 의기양양 했던 기운은 어느 새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카메라가 되어가고 있을 즈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YTN 해외리porter 교육의 기회.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에 할 일을 두 세 번에 걸쳐 하는 걸 보는 게 안쓰러워서 조금 일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담당 PD 님의 얘기에 살짝 면목이 없어졌지만 기분만큼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만큼이나 들떴다.

10월 31일 교육의 첫 날, 박성호 부국장님의 ‘TV 보도 특성과 기사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방송 문장과 화법’, ‘인터넷 정보검색을 활용한 취재방법론’ ‘NLE 편집실무’와 ‘영상 취재 이론’ 등 그간 활동을 하면서 놓치고 지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강의는 강사분들의 재미있는 설명과 더불어 내 실수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서를 제시해 주셨다.

리포트는 뉴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교육기간 중 마지막 수업, 광화문에 가서 각자 촬영을 하고 촬영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언론재단 앞에서 열리고 있는 6.25 사진 전시회를 찍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정작 눈길을 주는 이들은 많지 않고 나이 든 몇 몇 분들만 관심 있게 사진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런 주제로 촬영을 했다.

그런데 똑같은 6.25 사진 전시회를 보고 촬영을 한 다른 리porter는 나와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사진전을 해석하는 게 아닌가. 팩트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팩트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은 기자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리porter의 역할에 대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취월장-김미진 / 아피곤해-윤복룡 / 팔목상대-이미우 / 개과천선-박준 / 잘될거야-박지은 / 용기백배-양재혁 / 넘재밋당-김성우 / 배불러요-김희진 / 심기일전-박승호 /

유익뽕뽕-최대석 / 와이티엔-강주일 / 과다채증-박종은

이상은 8기 교육생들이 각자 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느낌이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고 있으니 모습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어색한 눈웃음으로 시작했던 첫 날이 무색하리만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웠던 우리들. 각자 너무나 개성 있고 유쾌한 이들과의 만남이 어찌보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큰 아이가 포스트잇에 가나다 글씨연습을 하고 있다. 분홍, 노랑, 주황색 포스트잇이 낙엽처럼 탁자 한 가득이다. 연필을 쥐 손가락은 힘이 들어갔고 꼭 다문 입술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마냥 긴장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컷을 나누어본다. 풀 샷 하나 들어가고, 얼굴 클로즈업 샷 하나 들어가고 포스트 잇 한 장 찍고... 즐거운 직업병이 하나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직업병을 만들어준 YTN 해외방송팀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희경 YTN월드 싱가포르 리porter



World Report

선거 방송의 <슈퍼스타 K>를 꿈꾸다!

총알 하나, “10.9.8.7.6.5.4.3.2.1”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발표된 YTN 예측조사(*응답자 4천명 사전 모집후 조사)결과, “박원순 51.9%, 나경원 4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3%포인트.) YTN 입사 합격자 발표날 이래, 이 순간만큼 마음 졸였던 때가 또 있었는가 싶다.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어찌하였든 오차범위 내에서 YTN 당선자 예측치가 적중한 셈이다. 선거철마다 각 방송사가 실시하는 출구조사를 포함한 당선자 예측 발표를 흔히들 ‘선거 방송의 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 YTN의 선거방송기획에서는 첫 단추에 불과했다. 10.26 재보궐 선거 개표방송 시작과 함께 쏟아질 ‘당선자 예측’이라는 신호탄 말고도 회심의 총알들을 장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첫 발이 적중해야 다음 발이 진정한 ‘킬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말이다.

총알 둘, “남의 속마음은 어떨까?”

선거팀은 당선자 예측 조사와 더불어 태블릿 PC를 활용한 출구조사도 함께 기획했다. “예측 조사가 못 미더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시하느냐”는 농담조의 코멘트를 해주신 분들도 더러 있었지만, ‘스마트 폴’ 출구 조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치 획기적인 시도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단순히 태블릿 PC를 활용했다는 방법론 말고도 투표 직후 유권자들의 속내를 낚날

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동안 공중파들이 시행했던 출구 조사는 수억 원을 들이고도 단지 누가 당선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비용과 전파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반면, YTN 선거팀이 기획한 ‘스마트 폴’ 출구조사는 30여개 항목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와 제 3정당에 대한 출현 기대, 또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등 현 정국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묻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방송으로 표출하는데 성공한 것. 그 시점 또한 투표를 바로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구 조사를, 투표가 마감된 직후 곧바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내 선거 보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부터 주간지와 일간지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YTN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실제 기사로 쏟아냈다. 한 마디로, ‘남의 속마음’은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한 분석 기법이 대히트를 친 것이다.

총알 셋, “우리 지역구 의원의 운명은?”

한 달 여전, 급작스레 선거방송TF팀에 발령이 난 뒤 나의 하루는 마라톤 기획 회의의 연속이었다. 수북히 쌓인 그날 하루치의 신문 스크랩들도 모조리 읽었다. 바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틀을 짜기 위함이었다. 선관위에서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면 의미가 있을까. 수차례 기획 회의를 거쳐

탄생한 작품이 바로 투개표 관련 데이터를 48개구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분석하는 포맷이다. 현 시점에서 총선이 치러질 경우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포맷으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뺨’하고 터뜨려 현 국회의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바로 비장의 ‘킬러 콘텐츠’였던 것이다. 자정 즈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분석 포맷이 전파를 타자 여러 언론 매체로부터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쳤다. 타사보다 한 발 앞서는 순간! 기자로서 이보다 뿌듯한 순간이 어디 있으랴. 이튿날 중앙일보(상처 입은 박근혜 대세론...한나라 혼돈 속으로, 27일 004면)가 YTN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고 다른 언론 매체들도 앞다퉈 선관위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자 선관위는 결국 이튿날 오후 관련 데이터를 각 언론사에 공개했다. 이것 말고도 비장의 무기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선거팀 일손이 딸려 포맷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총알 넷, “영상으로 말하라!”

“야, 그거 그림있어?” 방송쟁이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그만큼 방송 매체에서는 영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게다. 때로는 백마디의 말보다 한 컷의 영상이 주는 임팩트가 훨씬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팀에서는 다섯 편의 영상 리포트를 기획했다. <서울, 2011>, <역대 서울시장의 발자취>, <바람론 vs. ‘대세론’>, <나경원·박원순, 비슷하지만 다른 길>, <서울시민, 한 말씀만!>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선거가 재보궐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방송 3주 전, 현미가 팀에 합류하면서 이런 기획물들이 실제 영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현미의 손끝에서 영상

리포트가 한 편씩 완성될 때마다 팀원들 모두 모종의 위안을 받았던 것 같다. 장시간 이어진 기획회의 끝에도 선거날이 되기 전에는 당장의 결과물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고 있구나?”란 가시적인 성과물이 바로 기획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존의 1분 30초짜리 틀에 박힌 리포트 형식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획물이 선거 당일 이른 새벽, 마침내 전파를 탈 때는 가슴이 마구 땀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설레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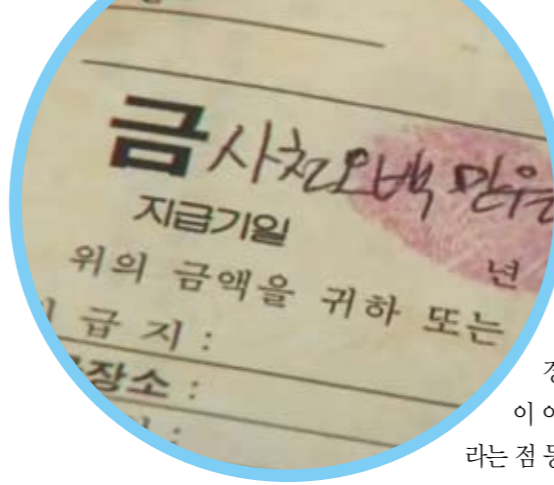
선거 방송의 <슈퍼스타 K>???

공중파에서는 굵직한 선거 방송에 수십 억씩 들인다고 한다. 정확히는 언리미트라고.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방송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방송이란, 자사의 보도력 뿐 아니라 총체적인 기술력과 그래픽, 영상, 음악, 세트 등 그 방송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 편의 ‘아류스틱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YTN은 어떨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다만, 선거팀원들 모두 ‘푹푹’ 뭉쳐 한 달여간 정말 열심히 달렸다. 비록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YTN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선거 방송에도 <슈퍼스타 K>가 탄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리라는 희망으로. 그리고 그동안 선거팀이 준비한 재료들이 최종 전파를 타기까지는 우리 기술연구소 식구들을 비롯해 개표 방송을 진행한 뉴스팀 구성원들과 YTN 대표 앵커들, 그리고 기술팀 선배님들, 음악감독님 등 모두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됐을 것이다. 역시 방송은 ‘함께’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일궈낸 공동 작품인 ‘아트’ 인게다.

최영주 선거방송 TF팀



왼쪽부터 3D그래픽 김세진, 10·26재보궐 선거총괄기획CC 김상우, 제작PD 서정호, 기획PD 최영주, 제작PD 김현미



“단순하게 생각하라”

우선,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합니다. 취재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보도를 통해 보람을 느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방향을 잡아준 것은 물론 보도가 나간 후 격려를 아끼지 않아준 선배와 동기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8월 '제일저축은행의 강남 유흥업소 부실 대출 의혹'에 관한 취재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일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강남 술집에 대출을 해준다는 제보였습니다. 더구나 대출 담보가 되는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규모가 천 억 원대는 될 것이라며 업주의 압력에 못 이겨 선불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준 종업원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천 억 원대의 돈이 그렇게 쉽게 대출로 나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 그런 식의 부실 대출은 강남 유흥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유흥업소 종업원이었습니다. 그 종업원은 '해고될까봐' 업주가 하라는 대로, 실제로는 쓰지 않은 1억여 원의 선불금을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다고 말했습니다. 업주는 이 종업원은 물론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허위 서류 작성을 강요한 뒤 그것을 담보로 수익 원을 대출 받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종업원은 한 달에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자신이 1억여 원의 선불금을 쓴다고 하는데도 은행 직원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한 질문

하나 하지 않은 채 서류만 받아 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써준 서류 한 장 때문에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에 이어 접촉한 사람은 한 유흥업소의 사장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 사장은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제일저축은행의 입장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란 것은 은행의 입장이 너무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강남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출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어차피 유흥업소가 대출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출금을 못 갚는 경우에 대비해 일반 대출보다 고금리를 받고 있다. 혹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다. 업주와 종업원이 짜고 허위 서류를 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겠나. 오히려 우리가 속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당당한 은행 측의 태도에 혼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은행 측의 이런 반응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혼란도 잦아들었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됐습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서민들. 이런 예금주들이 만약 애지중지 모아 맡긴 자신들의 돈이 강남 술집 운영 자금으로 부실 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일지를 생각하라는 조언을 들으니 문제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들의 입장은 사채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을 취재한 이후 회사로 찾아온 이용준 행장과 은행 측 변호사 등을 만난 뒤에는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도 대출을 결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함께 살펴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주의 신용 상태와 업소의 카드 매출, 위치 등도 살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경우 명의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고 현금 매출 규모 등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 업소의 위치 등은 명확히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점 등을 통해 볼 때 대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은행 측은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 뱅크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염려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대출 상품이 수익성이 좋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흥업소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알려지면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동팀의 김용래 선배가 저와 함께 행장을 만나고 은행 측 해명 논리의 허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날 집에 돌아와서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의 유흥업소 대출에서 부실한 부분을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초 보도가 나간 후 한 달여가 지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취재 당시 가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다시 한번 희열을 느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제일저축은행은 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삼아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저축은행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수익을 위해 서민들의 돈을 무책임하게 굴려온 저축은행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공연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매번 취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 내내 저와 함께 고민한 시절우 선배와의 호흡이 취재를 무사히 마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던 날 함께 좋아해주신 부장과 데스크, 혼란을 겪던 순간 힘이 된 ‘문제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캡의 조언, 아프리카에서도 리포트를 쟁겨했다는 바이스, 취재 과정에서 함께 조목조목 문제를 따져준 김용래 선배를 비롯한 선배들, 언제나 용기를 북돋워주는 동기들. 이런 선배와 동료들의 관심과 애정이 보도 과정에서 중요한 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도 제가 결코 혼자가는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점에 선 제게 이런 좋은 경험, 가르침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대근 사회1부



“공이 오면 안 받고 심판 맞혀버리고 싶었어요”

전국 초·중학교 스포츠 꿈나무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달은 언제일까요? 아마 5월 일겁니다. 소년체전이 열리기 때문이죠. 지난 3월 이곳 전남에서도 이 소년체전에 나갈 팀을 가리기위한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중학교는 모두 250여 곳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는 무척 많은 편이지만 야구팀이 있는 곳은 화순과 여수, 순천 이렇게 세 곳밖에 없습니다. 열악하다보니 야구팀을 꾸리기도 어렵고, 운영비라도 얻어내려면 예선전에서 꼭 이겨 전국대회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팀밖에 없어서 경기가 쉬운 게 아니라 세 팀뿐이라 더 치열한 거죠. 제가 해당 중학교를 찾아간 날도 아이들은 어김없이 유니폼을 입고 연습 삼매경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공을 던지고 또 던지고, 치고 또 치고... 이 아이들 중 언젠가 김상현도 나오고 김선빈도 나오리라 생각하니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꿈을 좇아 매진하는 아이들이 기특해보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저보다도 야구 규칙을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도 저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어린 만큼 배우는 대로 쭉쭉 흡수해 체화돼있겠죠. 그런 아이들의 경기를 어른들이 휘저어 놓았습니다. 지역유지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차지하고 있는 전남 야구협회의 이사진들이 말입니다. 경기의 주심과 부심을 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모 이사는 예선전이 열리기 전 주심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A중학교 교장이 와서 보고 있는데 A가 콜드게임을 당하게 해서 안 된다. 그렇다고 B가 경기에 쳐서도 안 된다.” 난감했지만 이 주심은 일단 정직하게 심판을 보기로 합니다. 3회말까지 점수는 1대 1. 경기를 지켜보던 모 이사는 경기장까지 쫓아내려와 “B가 지면 난리가 난다. 그렇게 되면 너가 책임져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주심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콜드게임도 아니면서 B가 지는 것도 아닌, 2대 4로 마무리짓습니다. 다음날은 1승을 챙긴 B와 C 중학교의 경기. 여기서는 다른 심판이 주심을 맡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심선언을 했던 전남 경기의 주심은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6대 2로 C 중학교가 승기를

몰아가자 포볼이 세 번 연속 선고되더니 곧 6대 7로 역전되고, 마지막에는 몰수패까지 선언됐기 때문이죠. C 중학교의 투수는 이날 포볼을 12번이나 맞았습니다. 포수를 맡았던 학생이 그 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공이 오기도 전에 판정을 해버렸어요. 투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차이가 큰 차인데...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해버리면 투수가 많이 흔들리니까... 투수가 많이 흔들리면 제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4회 때 제가 타임을 요청했는데도 안 받아주고 제 벨트를 잡아끌면서 자리에 앉히고 빨리 진행하라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사진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나같이 양심선언을 한 심판을 포함관, 양심을 품은 불만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선 2차전 경기 주심과 감독 등을 자신있게 제 앞에 증인으로 내세우며 조작 지시 따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이사진과 심판, 감독, 관계자 등 10여명이 떼로 몰려와 저와 촬영기자를 앞에 두고 똑같은 말을 중구난방으로 실 틈 없이 퍼부어대는 모습을요. ‘아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뭔가 ‘말 실수’가 하나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진위를 놓고 꼬치꼬치 실랑이를 벌이기를 한 시간여... 조작 지시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모 이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적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적으로... 여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위(교장)에 이렇게 오시고 사기 양양을 위해서, 야구 발전을 위해서 콜드게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렇게 했지 ‘야, 무조건 너 콜드게임 시키지 마’ 그렇게는 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된다면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죠.”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겠지만 마인드가 이러하니 그동안 수많은 초·중·고교 예선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기사는 순조롭게 보도됐고, 전남야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대한야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선언을 했던 심판과 C 중학교의 감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직 질서를 흐트러뜨렸다(?)는 이유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보도 이후 전남야구협회 내부적으로 어떤 공방과 갈등이 오갔기에 그런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제보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 속에 부채로 남아 아직까지 안부 전화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고발성 보도를 할 수 있었던 데는 9할이 김경록 선배 덕분이었습니다. 제보 자체도 김경록 선배를 통해 알게된 것이었고, 사소하게는 야구의 규칙에서부터 마지막에는 제가 확신과 소신을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제보자의 과거 인품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봐주셨습니다. 또 이 기사가 지역에서 빛을 보고 수상의 영광도 얻게된 데는 전적으로 지국장이신 이인배 선배 덕분입니다. 하루 종일 출입처는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데도 취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 주셨습니다. 회손으로 번쩍, 여수로 번쩍 어디든 ‘오케이!’하고 단숨에 날아가주시는 이천재 선배, 묵묵히 따라주는 오디오맨 김형수 씨, 그리고 이 ‘승부조작’ 보도에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늘 지켜봐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김범환 선배, 문환수 선배께도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후기를 쓰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반까이’를 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려운 곳을 더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썩은 곳을 더 확실하게 파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볼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경
YTN 사회2부 광주지국

영산강 황포돛배 취재현장 왼쪽부터 이천재, 김경록 차장, 황혜경



생각지도 않았던 특종상의 영예...

“고 기자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아침, 잠을 자던 나는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잠을 깰 겁니다. 멍한 상태에서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전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보니 평소 알고 지내는 제주해경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네, 고 기자님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수색 중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말에 반쯤 감겨 있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항공사는 어디며 사고는 언제 접수됐느냐, 화물기냐, 여객기냐 등 기본 정보를 취재했습니다. 1보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노트북으로 단신을 급히 쓰고 서울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당시 야근 데스크인 박흥구 선배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본사로 제보가 와서 전화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챙긴 뒤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에서 1보로 전화연결을 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건 화면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해경 공보실로 전화해 화면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해경은 요즘 경비함에 촬영을 위해 장비를 갖추고 화면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초기 수색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받기 위해 해경 웹하드 주소와 비번을 야근기자인 신운정 기자에게 알려줬습니다. 8시 전화연결에는 우리가 입수한 수색

영상이 타사보다 빨리 생생하게 뉴스에 나가게 됐습니다. 뉴스 속에서 흐리지만 처참하게 부서진 추락 화물기의 잔해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화연결과 리포트를 챙기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일을 마무리 한 뒤에는 가슴 한편에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도 아시아나 화물기의 사고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 화재로 추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장의 보험금 가입 문제로 말이 많았고 사고 해결의 열쇠인 블랙박스도 수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사고를 타사보다 먼저 챙기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종상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게 특종상의 영예를 누릴 기회를 주신 박흥구 선배와 신운정 기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한 제주 지국 식구들과 리포트 제작이 며 열심히 취재해 주신 촬영기자 이승주 선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재형 제주지국



경력사원 _ 인사드립니다.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방송기자

조태현(80. 9. 18)
 한양대 경영학과 /
 교통방송 / 이데일리
 경력방송기자로 입사하게 된 조태현입니다. 기대감이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자부심을 품고 기존 경험을 살려 YTN을 대표하는 방송기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제담당기자

안소영(79. 2. 19)
 시라큐스대 신문방송학 / 워싱턴 코리아 / 뉴욕 라디오 코리아 / 아리랑TV
 YTN은 제가 뉴욕에서 늘 시청하던 방송입니다. 한국의 CNN인 YTN에서 일하게 돼 너무 설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국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방송기자

계훈희(83. 2. 15)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 강원민방 / SBS CNBC
 YTN의 식구가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방송기자

조임정(84. 6. 1)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이데일리
 첫 출근 전날 설레임과 기대감이 잠 못 이뤘던 그 느낌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과학저널리스트

이성규(76. 1. 15)
 연세대 / mbn / 연합뉴스 / 사이언스타임즈
 과학과 방송의 아름다운 접목을 통해 과학뉴스를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보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YTN웨더 제작PD

김보리(84. 9. 30)
 워덕대 / 교통방송 / KBS미디어
 백미디 말보다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성 제작PD

한성규(82. 4. 21)
 극동대 방송영상제작과 / 사이언스TV
 한 눈에 봐도 'YTN' 이란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뇌리에 팍팍 심어줄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담당기자

조수현(90. 10. 29)
 美 UC Berkeley대 영문학과
 선배 기자들의 경험과 조언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YTN의 문화와 정신을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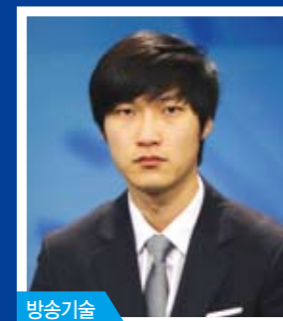
방송기자

오동건(79. 8. 29)
 고려대 언론학 석사 / 극동방송, YTN 라디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지만 투철하게 임하겠습니다.



방송기자

이종원(77. 1. 13)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티브로드
 열정과 끈기 그리고 인내. 가슴 따뜻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방송기수

이한배(81. 8. 29)
 순천향대 정보기술공학부 / ns홈쇼핑 / 포항공과대학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사람인(人)자와 같이 사람이기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무회계담당

남세환(83. 5. 20)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 한국수자원공사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 다시 시작하는 도전

WSDC 2011의 참관 기회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영어 토론에 관심이 많은 저는 2010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부터 국내에 열리는 모든 대회에 결과와 상관없이 참가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2010년 YTN 대회에서도 본선에서 저보다 더 나은 토론자들을 보면서 논리적인 면과 스타일에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연속선에서 WSDC 2011의 참관은 저의 디베이트 관점을 한층 더 높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현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 팀이

16강에서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의 첫 참관은 8강전. 호주 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의 토론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호주팀의 디베이트 방식을 보며 정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디베이트는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일과 논리,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높은 토론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도 할 수 있을까 싶은 어려운 사회적 상식들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라서 조금 더 쉬운 감도 있었겠지만 웅변술 또한 놀라웠습니

다.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던 것은 '보서(Bo Seo)'라는 이름을 가진 호주의 첫 번째 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민에 대한 토론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11살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심판장이 "보 세오"라고 발음하였을 때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성씨는 '서'이고 이름의 첫 글자가 '보'인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11살의 한국계 이민자. 언어 습득 만만 보면 그다지 이르지 않은 시기에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를 대표하는 고등학생 디베이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Bo Seo는 WSDC의 많은 사람이 인정하였듯이 호주팀 내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디베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듣기 쉬운 형식으로 복잡한 내용들을 술술 풀어서 설명하였고, 어려운 철학 개념들을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자신의 팀 입장에 적용하였습니다. 더욱 매력적인 점은 그의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백인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목소리와 멋진 억양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귀에 더 잘 들어오도록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코치인 로저 헤트리치(Rodger Hatridge)씨도 "저런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야지 공평한데..."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4강전과 결승전까지 참관했습니다. 결승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제는 "페이스 북의 시대에 독재자들은 종말을 맞이한다" 였는데 싱가포르팀과 호주팀 양 팀 다 팽팽한 논리로 맞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제가 찬성팀에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불리한 주제임에도 찬성팀의 입장에서 선전한 호주팀의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호주 팀이 이겼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싱가포르팀의 승리였습니다. 아시아 팀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3번째 토론자였던 싱가포르의 테렌진(Teo Ren Jin)이 전체 개인점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팀의 토론자들은 발음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

가까운 학생들이기 마련인데 Teo Ren Jin은 아시아 발음임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도 정말 감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흠 잡기 힘든 멋진 스타일로 관중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디베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WSDC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꿈의 무대일 것입니다. 한국 팀의 EFL, ESL 스피커 상 장악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2012 WSDC 팀 풀에 들기 위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1 세계대회를 참관함으로써 한층 높은 차원의 디베이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디베이트 형식과 스타일을 보면서 디베이트를 보는 마음의 눈이 넓어진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발전에서든, 멋진 여행이었던 이번 2011 WSDC의 참관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참관의 기회를 주신 주최 측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현 용인외고 2년
(제3회 YTN-HUFS 고등학생영어토론대회 준우승팀)

YTN과 함께 세계학생영어토론대회를 다녀오다

WSDC(World School Debating Championship)는 세계학생영어토론대회를 말한다. YTN은 고등학생대회 준우승팀(Two and a half men, 김동현, 이진석, 이건욱 용인외고 2년)과 개인부문 Top Speaker상을 받은 이현주(KCL, 과천외고 1년)에게 대회 참관의 특전을 주었다.



대회 8강전, 호주 대표팀 Bo Seo가 Speech하고 있다. 상대팀은 남아공 대표팀



대회 4강전, 호주 대표팀과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경기



대회 결승전, 호주 대표팀과 싱가포르 대표팀의 경기. 주제는 '페이스북의 시대에 독재자들은 종말을 맞이한다'. 최종 우승은 싱가포르 대표팀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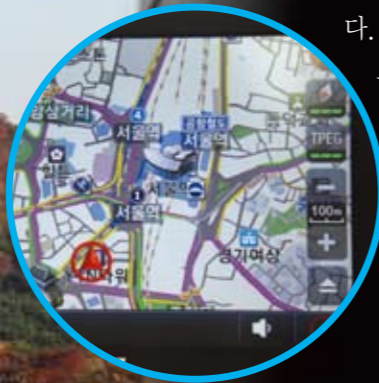


대회 참관차 방문한 스코틀랜드 던디 대학 정문 앞
(좌측부터 이진석, 이현주, 김동현, 이건욱, 정철차 외국어대 교수)

DMB의 새로운 도전

YTN의 첫 10년은 하나의 PP(Program Provider)에 지나지 않았다. 국내 유일 보도채널이라 제아무리 으스스해도, 정치인들이나 귀를 기울일까, 일반 국민들에겐 그저 '뉴스만 하는 케이블'일 뿐이었다. 선이 문제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방송이 아닌 선을 찾아다니는 방송, 그게 현실이었다. 중계차 앞에서 TV 켜 놓고 앵커의 다음 멘트를 기다리던 지상파 기자들, 아이폰에만 의존하던 YTN 기자들에겐 부러움이었다. 물론 동시에 이를 악물게 만드는 자극이기도 했지만, 방송 4사? 2005년 당시 K, M, S 다음에 EBS 아닌 YTN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몇이나 됐을까?

이런 YTN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YTN은 그 기회를 낚아챘다. 2005년 12월 1일, PP가 아닌 방송사로서의 첫 전파 발사. 지상파DMB 출범이었다. 당시 지상파DMB의 TV채널은 7개, KBS1, 2와 MBC, SBS 지상파4개 채널과 YTN이었다. 신규 채널 2개 U1과 1to1이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뉴미디어 DMB에서 시청자들이 지상파 외에 유일하게 알고 있던 채널 YTN, 지상파 3사와 어깨를 같이 하는 순간이었다. 효과는 확실했다. 적어도 네 번째 떠오르는 방송. 정치인 아닌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YTN이 주요 방송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DMB를 통한 교통정보 데이터방송 TPEG이 KBS, MBC와 함께, 때론 그들을 누를 정도의 시장



장악력을 발휘한 것도 일반인들에게 YTN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오죽하면 SBS가 뒤늦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며, TPEG 시장에 뛰어들었을까. 이후 2008년 촛불집회 등 방송사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마다 손에 DMB폰을 든 국민들은, YTN을 "막둥이"로 부르기 시작했다.

변화는 제2막으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의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 사용하던 PC의 수준을 뛰어넘는 막강한 성능의 스마트폰이 국민들에게 보급되면서, 모바일 미디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통신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전송, YTN은 여기서도 국내 방송사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 어플을 출시해, YTN뉴스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배달했고, 최근 지상파 3사도 Kplayer, Pooq, Goreatra 등의 어플(App)을 출시하면서 변화의 대열에 동참했다. 네트워크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떤 PP라도 굳이 DMB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길거리의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배달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DMB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우리의 숙원이었던 'YTN 뉴스의 무선 배달' 역할은 이제 DMB 대신 다른 기술들이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모바일 미디어로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DMB의 강점은 앞으로도 오랜 동안 유효하겠지만, DMB로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들도 준비하기 때문이다. 명품 반지를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유리커터에 쓰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법적으로 방송사가 아니라 프로그램공급업자(PP)인 YTN과 달리, YTN DMB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플랫폼)이란 점이다.

먼저 종합편성채널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종합채널들이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미디어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YTN은 그들의 수십분의 일의 비용만을 들여 그들이 그토록 원한 종합

편성채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DMB가 지금까지 YTN의 숙원을 위해 'YTN 재전송'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면, 이젠 트렌드를 따라, '벌이가 될 만한' 콘텐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천문학적인 콘텐츠 비용을 들이지는 말이 아니다. 채널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과 그에 걸맞은 만한 편성정책을 통해 '중편 붐'의 시류에 뒤처지지 않는 제 자리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아니 장애물 극복을 통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YTN의 종합채널 @YTN이 모바일에서 집 안으로 옮겨 SO의 한 채널을 새로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품질 개선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기술적으로 통신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뒤처지지 않는 화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간단한 선택만으로 지금의 4~6배까지 화질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넘어야 할 벽은 있다. 그러나, YTN이 그런 벽 앞에 좌절한 조직이었던가.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리 멀지 않은, 1~2년 뒤의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새로운 기회를 먼저 이끌어내는 YTN이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 나는 책상 옆에 'DMB = Dynamic Mobile Business'라 붙여 놓고, 새로운 모바일 사업 기회를 모색해 왔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용어 정의가 필요해졌다고 본다. YTN에게 있어 DMB는 최고의 수익을 제공(Delivers the Most Benefit)하는 존재가 될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반 잔의 컵을 두고, '반 밖에 남지 않았다'로 볼 것이냐, '아직 반이나 남았다'로 볼 것이냐 라는 어리석은 고민은 하지 말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는 우리 앞에서 또다시 새로운 응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정훈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Dynamic Mobile Business

별 볼일 있는 천문 프로그램!

텔레비전 앞에 서서 멍하니 YTN뉴스를 보고 있었다. 분명히 내 낯을 의심케 했다.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진짜야? 다시 금 눈을 비비며 화면을 응시했다. 또렷하게 초점이 맞으며 보이기 시작했다. 화면 하단에 큼직하게 '빛보다 빠른 물질의 발견' 내 머릿속에 순간 백발의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긁적이며 '이게 아닌데'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끼다...

4개월 전 빛보다 빠른 물질의 발견에 대해 '이것이 세상 사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난리들이야하며 별 반응 없던 나였지만 지금은 이런 발견이 내게 새로운 충격과 흥미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별별 이야기>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부터다. 내가 맡게 된 <별별 이야기>는 천문학을 주제로 우주, 지구과학, 별자리 등을 시청자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는 '내가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빠져 한 동안 내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다. 꿈에서도 태양계의 행성들이 무섭게 폭발을 하면서 내게로 떨어지곤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출연 중인 천문학과 교수님의 도움과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나에 대한 그런 불안은 이제 없어졌다 그 대신 관심조차 없었던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빛보다 빠른 물질의 발견은 우주를 탐구하는 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줄 수 있는 희망 같은 얘기다. 나 또한 우주에 흥미를 갖게 된 현재로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지구와 우리 은하계,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보다 더 크고 먼 새로운 은하계를 빛의 속도 보다 빠르게 탐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다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태도도 변화시켰다. 이전의 삶이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점차 설렘으로 변하면서 세상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신의 존재를 대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지식은 4%, 나머지 96%는 모르는 영역이다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은하계를 송두리째 빨아버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태양보다 더 오랜 수명을 가진 초신성(별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순간적인 폭발을 내며 빛을 낸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거대한 빅뱅(우주 시초에 있었던 대 폭발)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되었지만, 왜 우주는 수축하지 않고 계속 무한한 팽창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별별 이야기에 대하여...

<별별 이야기는> 이런 신기한 현상에 대해 너무 어렵지 않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으로 코너는 <별별 뉴스>, <와우 천문영상>, <이태형의 생활천문학>, <별자리 사전> 네 개의 코너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코너마다 어려운 용어나 전문적인 과학용어를 천문학과 교수님이 쉽게 설명한다.

<별별 뉴스>는 한 주에 일어난 우주 혹은 지구과학 현상에 대한 알 빠른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며 <와우 천문영상>은 평소 쉽게 보지 못하는 북극지방의 오로라, 별의 일주, 태양이 작렬 하게 폭발하는 순간의 모습 등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는 코너이다. <이태형의 생활 천문학>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과학상식이나 매우 재미난 천문상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거리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답과 실제 답을 비교해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는 생활밀착형 코너다. <별자리 사전>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유명한 별자리에서부터, 보통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별자리 등에 대해, 그 이름의 유래, 시대적으로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직접 시청자가 그 별을 찾을 수 있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천문학, 시청자들이 <별별 이야기> 보면서 '천문학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잠시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며 삶의 여유를 느껴보자...

유난히 가을의 하늘은 맑고 높다. 이런 맑은 날씨의 밤하늘은 어떠할까? 평소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책에서만 봤던 안드로메다자리, 페가수스자리, 카시오페아자리 등을 내 눈으로 직접 찾았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물론 <별별 이야기>를 통해 그 별자리의 상식을 알고 찾는다면 더욱 재미나지 않을까?



차순길 YTN웨더 편성제작팀 PD



<방송시간> (토) 16:32, 23:32 <제작진> MC 이세나, 패널 이태형 충남대 천문우주학과교수, PD 차순길, AD 한택원 <제작의도>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천문학에 친근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로 다가 천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고화질의 천체영상,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천문상식을 전문가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과학계의 리더를 만나자!

나로호 발사 시도, 원전수출 강국... 이제 대한민국도 과학 선진국에 굳건히 발판을 다졌다. 모든 국력의 바탕인 과학을 이끄는 그 선두에는 누가 있을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들을 YTN 사이언스TV '리더스 카페'가 만난다.

리더에게 듣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과학 이야기

“내년 R&D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잘 되었나요?”

“계획한 바만큼 예산 책정은 잘 되었습니다만...”

녹화 15분 전, 스텝들이 분주하게 스튜디오와 부조 종실을 오가는 시간. 이미 스탠바이가 끝난 출연자와 최수호MC 사이에 깊이 있는 질문이 오간다. 물론 녹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전 녹화 전, 보다 더 깊은 대담 진행을 위해 진행자의 목혀두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과학계 인사를 초빙해 현안과 정책 연구방안, 대안까지 짚어보는 '리더스카페'. 기존의 과학 대담 프로그램들이 과학전문가를 자리에 모시고 시청자들에게 과학지식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리더스 카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현 과학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질문들까지 오간다.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선두에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연구자가 아닌 그들을 아우르는 리더들이기에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리더스 카페'다.

리더를 만나는 제작진의 몇 가지 자세

시청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리더에게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똑똑해야 하는 사람들... 30여분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과학 리더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이 있다. 바로 제작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인 만큼, 과학정책부터 주요 현안, 전문 지식까지 머릿속에 주워 담아야 하는 피디와 작가, 그리고 MC까지...

대담 방송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장 뜨거운 과학 이슈와, 정책과 관련된 과학지식, 출연자의 신상정보까지... 1주일 내내 출연자와 관련된 과학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제작진이 마치 과학자라도 된 기분이다. 이렇게 작성된 스튜디오 대본과 질문지는 녹화 하루 전까지 MC에게 전달된다. 단순히 질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추가 질문까지 준비하기 위한 MC의 노력이 또 시작되는 것!

리더들을 만나기 위한 제작진의 몇 가지 자세? 아니,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공부에 공부! 또 공부!!

이제 시작... <리더스 카페>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

“콜록콜록” “여기 물 좀 빨리 가져다주세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긴장하는 대한민국의 리더들. 스튜디오의 'ON AIR' 빨간 불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몇 번씩이나 테이블의 물을 마시고, 땀을 닦아내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않는다. 녹화가 들어가고 MC와의 본격적인 대담이 시작되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방송 전문가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사람들...

첫 번째 리더였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부터, 창의과학재단 강혜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과학계 리더들이 궁금하다.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힘! 그들과의 만남은 앞으로 계속된다! 쭈욱~ 어디서? '리더스카페'에서!

지정운 YTN사이언스 <리더스 카페> PD



Leader's Cafe



<방송시간> YTN사이언스(목) 10:30, 17:30
<제작진> PD 지정운, VJ 윤광현, 작가 김효진
<기획의도>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담 프로그램.

그들이 사는 세상

94.5MHz 뉴스제작팀의 하루

피치 못하게 택시를 탈 일이 생기면 기사님이 라디오를 어떤 주파수에 맞추어 놓았는지 유심히 지켜본다. 때론 은근히 YTN 라디오를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반갑게도 이미 YTN 라디오를 듣는 분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차분히 담아 적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상살이와 그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우리 뉴스제작팀의 하루는 매일 일어나는 국내외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인터뷰를 담당하는 아침 7시,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으로 시작된다. 아침의 긴장과 설렘을 뒤로 9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패트론티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물꾸러미

처럼 전달해준다. 오후의 나른함을 일깨우는 본격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 토크'은 3시부터 4시까지를 책임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 하루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 가정으로 향할 누군가의 지갑을 챙기고자 피부에 와닿는 경제 이야기를 가득 담은 '생생경제'가 6시까지 바통을 이어받는다. 뉴스제작팀의 하루는 이제 최신 이슈와 화제, 각 분야의 주요 소식과 쟁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모하는 '이슈앤피플'로 하루의 저녁노을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그려낸다.

YTN 라디오의 하루를 짓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전체 구성에 못지않게 과정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색깔과 개성이 묻어나오기

마련이다.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의 구성원들은 다른 조직이 그렇듯 나름의 역할과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붓터치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힘쓴다. 구성원이 만드는 생산적 상호 교류와 모방의 호혜적 관계가 우리 뉴스제작팀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9월부터 뉴스제작팀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윤순섭 국장님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화와 배려로 이끌려고 항상 노력하신다. 라디오PD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할 이번 11월 개편은 그 하나의 결실이다. 그 결실을 영끌게 할 뉴스제작팀의 큰 형님, 지순한 선배님, 여자를 능가하는 수다와 그만큼의 섬세한 배려를 가진 '신언니' 신동진 PD, 마당발의 열정으로 YTN 곳곳을 누비는 박용호 PD, 엄마라는 이름으로 더욱 아름답게 컴백한 생기발랄 주현정 PD, 7월부터 라디오의 새 식구로 합류한 재기발랄 미녀 김혜민 PD, 그리고 은근하지만 근지구력 강한 안지영 PD. 이들은 뉴스제작팀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섬세한 색깔을 덧칠하고 그 질감을 풍성하게 해주는 작가들의 역할은 라디오 뉴스제작팀을 살아있게 한다. 부자집 만며느리 같은 든든함으로 프로그램을 감싸는 이혜민, 아이디어와 친절함으로 프로그램에 생기를 더하는 주나경, 은근하지만 잔잔하게 스며드는 이제 새 식구가 된 김서윤, 최용휘 작가, 또 개편과 함께 새롭게 합류될 작가들. 이들은 뉴스제작팀의 허브다.

프로그램 제작과 24시간 방송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최강동안 엄수연, 토크 튀는 정보영, 청순가련 노소정, 해맑은 청일점 백지형, 든든한 김은미 AD의 노력은 YTN 라디오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YTN 라디오의 꿈

2008년 4월 30일 오전 12시 뉴스 전문 YTN 라디오가 개국한 이래 뉴스제작팀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여러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YTN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화하고자 뉴스제작팀은 시사각각 벌어지는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보도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각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각 구성원마다 조금씩 색깔은 다르겠지만,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은 보다 많은 청취자 확보와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큰 밑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다. 방송 권역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내실화와 YTN 라디오로서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라디오 뉴스제작팀의 강화된 팀워크와 생산적 교류를 위한 시도들은 방송 중간 중간, 사내 곳곳에서 지속된다. 'YTN 라디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만드는 부단한 작업, 그리고 그 뉴스제작팀의 초침과 시침이 세상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제대로 그려내고 그 과정에 적절하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매개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꿈꾼다.

안지영 YTN라디오 연예톡톡 PD

왼쪽부터 이혜민 작가, 엄수연AD, 최용휘 작가, 박용호PD, 김서윤 작가, 윤순섭국장, 신동진PD, 주나경 작가, 안지영PD, 주현정PD, 김혜민PD





예마(예비 마스터다이버)를 꿈꾸며...

제주도는 5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육지 사람들은 이곳을 골과 관광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늘, 양배추, 양파, 감자, 배추 등 육지에서 소비하는 채소의 많은 양이 청정 제주에서 재배된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 제주농민들의 심정은 오죽 답답했을까?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국에서도 가뭄으로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여러 번 취재했다. 가뭄취재를 하면서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과 함께, 나의 마음도 타들어 갔다. 왜일까? 이제 곧 다이빙동호회에서 제주투어를 한다. 모두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1년에 한 번 정기다이빙투어를 하자고 몇 달 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다. 지금 농민들은 비가 오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 가는데 다이빙을 즐겨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다이빙 하루전날 그렇게도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지국근무를 하면서 태풍 장마 등 비와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해서 비라면 지국지긋했는데 이번 비는 말 그대로 '단비'였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농민이나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단비'였던 것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뭄해갈 취재를 마치고 퇴근 후 모처럼 지국회식을 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좀 나아진 상태였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는 나지만 이번 회식에선 그동안의

고민이 한꺼번에 해소되어 기분 좋아서 술을 좀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시 감기가 재발한 것이 아닌가? 콧물에 기침까지!(우째 이런 일이...) 다이빙에 필수적인 압력평형에 문제가 생긴 것 이다.

〈압력평형이란? 다이빙할 때 수압변화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강을 하는 동안 공기 공간속으로 공기를 추가로 넣어서 부피를 정상으로 유지하여 수압과 내부의 공기수압을 같도록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코막힘, 콧물에 기침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몸속의 귀와 부비동의 공기공간은 목과 연결되어 있어서 압력평형을 위해서는 폐 속의 공기를 이용해야 하고 마스크 속의 공기공간에 대한 압력평형을 위해서는 코를 이용해야 하는데 코막힘, 콧물에 기침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오호 통재라...

아무리 나 자신이 다이빙 최단기간동안 모든 약조건 경험, 최다 자격증 보유기록인 다이빙계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나도 코 막히고 재채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다이빙이란 적잖은 부담이었다.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서귀포로 넘어갔다. 제주시에 2년 반 살면서 서귀포시는 다닐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 가는 것을 육지 것(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가는 정도의 거리로 인식한다. 나도 첨엔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출퇴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이곳에 적응했는지 이제는 서귀포가 참 먼 곳으로 느껴진다.

Good Diver에서 반가운 육지 것들(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오후동안 3번의 다이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볍게 인사만하고 통통배에 올라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를 맞으며 그 유명한 범섬으로 향했다. 비가 온 다음날이라 날씨도 쾌청하고 수온도 24도로 다이빙하기에는 적당했다.

1년만의 다이빙이라 걱정이 컸는데 콧물에 기침까지 하니 걱정이 배가 되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괜히 나 때문에 동료들에게 폐는 되지 않을까? 등등...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다이빙은 머리로 익힌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바다 속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물속에서 코가 뻥 뚫리고 기침이 멈추었다. 하강하면서 압력평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신기했다. 역시 인간의 몸은 어느 상황에서나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바다 속 시야도 좋아 자리돔무리가 군무를 추고 눈앞에선 니모가 작은 지느러미를 흔들리며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나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분홍 맨드라미산호가 왜 이제 왔냐고 온 몸을 흐느끼며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저쪽 다른 팀 누군가는 중성부력을 맞추지 못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처음 다이빙을 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돈, 명예, 권력, 갈등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며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참 평화로워 보였다. 수면위로 올라가기 싫었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 쯤 서서히 호흡이 뻑뻑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얼른 잔압계를 보니 공기가 얼마 안 남았네.. 아뿔싸! 이제는 싫어도 올라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뒤로하고 5m에서 3분 감압 후 여유롭게 상승하여 무사히 약조건 상황의 다이빙 경험을 하나 더 추가 하였다.

이제 나는 어떤 약조건 하에서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감만으로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제주에 있는 동안 기본을 충실히 닦아 '차징 예마(예비 마스터다이버)'가 아닌 '주변에서 인정하는 예마'가 되고 싶다.

이승주 차장 제주지국

포토 뉴스



전국 지국장회의(9.23)



어우러기 일일호프(9.30)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에서 주관한 일일호프, 이날 전통활채어 수리와 안전등 달아주기 행사도 열렸다. 어우러기 대표 이광범 사위(총무) 팀은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희망이자 꿈"이라고 말했다.



제 5회 다산대상(10.3)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4개 부문에서 공적을 남긴 사람들을 시상하는 다산대상이 남양주시 다산유적지에서 열렸다. 청렴봉사 부문에 박현주 인턴 서구 도서관 열람봉사과장이, 문화예술 부문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씨, 실용과학 부문에는 유재열 쓰리알 대표이사, 사회복지 부문에는 지역사회운동가 최성원씨가 대상을 받았다.

3/4분기 포상 (10.10)

〈특공상 금상〉 김대근 사회부 :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고발 시리즈 보도 〈특공상 은상〉 박홍구, 신윤정 정치부, 고재형 제주지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제주바다 추락 보도 / 김경록, 황해경 광주지국 : 중학 야구 승부조작 논란 보도 〈특공상 동상〉 배성준 정치부 : 해병대 총기사건 공범 확인 취재 보도 / 홍상희, 강진원 정치부 : 대북정보수집 국정원 간부 중국 구금 보도 / 임중술 스포츠부, 이동형, 박진수 영상취재2부 : 우사인 볼트 '본노의 질주' 단독 취재 보도 〈공로상〉 최중민 마케팅3팀 : 웨더채널 광고유치를 통한 매출 증대 기여 / 김상의 스포츠부 : 뉴스 피드백 구매비용 절감 및 중계포인트 확보 공로 / 신동훈, 이은영 기술연구소 : 기상그래픽 저작 및 표출 시스템 개발 / 조상현 인프라팀 : 18층 부조정실 HD 시스템 전환 공사 공로 / 김대공 편성제작팀 : 웨더채널 개국 및 날씨프로그램 기획 / 이강규 편성제작팀 : 3D 날씨그래픽 제작 공로 〈표창장〉 조현선 웨더본부 기상팀 : 새벽 날씨 프로그램 제작진행 공로

입사

최현식 사이언스TV본부 뉴스제작팀 11.14 / 이한배 기술국 11.7 / 남세환 경영관리팀, 계훈희, 오동건, 이종원, 조임정, 조태현 보도국, 안소영, 조수현 국제부, 김보리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11.1 / 한성구 편성운영부 10.28

퇴사

고경현 제작기술부 11.11 / 송동열 그래픽팀 11.4 / 강근배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11.1 / 박호은 제작기술부 10.31 / 이지희 그래픽팀 10.23 / 최홍석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10.10 / 이승환, 이용준 제작기술부 10.7 / 허인영 타임운영팀, 안광연 제작팀 10.5 / 송우빈 경영관리팀, 이대승 부장 영상이카이브팀, 이종술 사이언스TV본부 뉴스제작팀 9.30 / 임중주 차장대우 정치부, 장기영 차장대우 국제부, 윤경민 차장 편집2부, 송영범 차장 그래픽팀 9.16

전보

정영근 YTNDBM파견 (DBM상무, 집행임원), 오수호 DBM사업본부장, 김승환 심의실장, 김익진 경영기획실장, 김홍규 총무국장, 황명수 미디어사업국장, 최수호 해설위원실장, 윤두현 보도국장, 이귀영 보도제작국장, 문중선 글로벌뉴스센터장, 류희림 사이언스TV본부장, 이병균 신사육건팀추진팀장, 홍영기 강원취재본부장(춘천지국장 겸임), 이정우 충청취재본부장(대전지국장 겸임), 김중술 영남취재본부장(부산지국장 겸임), 이인배 호남취재본부장(광주지국장 겸임), 신동윤 심의실, 유종선 신사육건팀추진팀, 주동원 해설위원실, 박득송 글로벌뉴스센터, 손재호 부산지국 11.14 김정대 부장 디지털VTN 파견 11.7 / 김신영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10.10 / 김동민 마케팅기획팀 10.4 / 미디어전략실장 한영규 경쟁력강화 TF팀장 겸직, 김상우 선거방송TF팀장, 신현준 차장, 이종수 부장대우 보도국, 최명신 차장 보도국(경쟁력 강화TF팀 겸직), 기획총괄팀 최유석, 영상취재부 최계영 차장대우, 기술기획팀 김한철 차장 경쟁력강화 TF팀 겸직, 최영주, 서정호 선거방송TF팀 9.19

